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4호 [루계 제23206호] 주체99(2010)년 9월 11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하 노 이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농 득 마 잉 동 지

나는 당신의 생일 70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귀국민이 당신을 총비서로 하는 월남공산당의 령도밑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월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 제10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완철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체99(2010)년 9월 10일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게재하였다.
메히코주제사상연구소에서 발행한 불매전특간호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호금도동지와 상봉하시는 사정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경도자들

과 인민들은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와 장중시에서 뜨겁게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각기 통보하시고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력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

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면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27년부터 1929년까지 공부하신 길림육문중학교를 방문하시였다.
그께서는 80여년전 학창시절 주석의 체구가 슬베어있는 철학을 비롯한 귀중한 사적물들을 경건한 심정으로 보시며 만단심회를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천리에 달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오가시며 근면하고 지혜로운 중국인민의 사상감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을 깊이있게

로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은 호금도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번엔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남로 총재 발전하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고 인 사변으로서 조중친선의 년대기구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와 브라질공산당 인터네트홈페이지 《베르멜유》, 폴스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홈페이지도 같은 소식을 실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디마스끄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 사 르 알 아 사 드 각 하

나는 생일 45돐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수리아정부와 인민은 당신의 훌륭한 령도밑에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진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관심속에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나라의 번영과 중동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체99(2010)년 9월 10일 평양

백두산장군들을 높이 모시여 빛나는 조선

외세의 총칼밑에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고 세계지도에서마저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오늘은 통성민영의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가고있는 위대한 현실앞에서 국제사회는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주제사상연구소 에페드르문화협회 위원장은 지난 세기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신출한탄 조선이 제국주의아성을 전멸케 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철수 있었던것은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주석께서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우시였기에 조선은 사회주의성세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은 부닥치는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며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신 김일성주석을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수령으로 신뢰하고 있다. 주석께서는 혁명가적품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반미대결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성과를 다 주석께서 한평생을 바치며 마련하신 고귀한 업적들과 땀수없이 렬진되어있다.
베루 새로운 좌익운동 위원장은 사회주의조선이 세계 진보적인인류가 한결같이 우리르는 위대한 나라로 될수

있었던것은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파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 김일성주석각하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백승을 떨치시며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건설해나가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제사상연구소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진두에 서계시므로 하여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혁명력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 나라의 위대성은 재부나 령토의 크기, 인구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걸출한 수령을 모시면 위대한 나라로 된다. 사회주의조선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 존엄높은 나라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로 세계에 지켜나가시는 강국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메히코신문 《우니다드 나세오날》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건국의 어버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겠다고 선언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강성대국건설은 주석의 생일의 념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도하하면서 대학선, 대미약을 일으켜나가는 인민들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최첨단 돌파의 새 경사

《련하기계》 집단에서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 개발

조선로동당대표자와 조선로동당장전 65돐을 앞두고 온 나라가 크나큰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련하기계 공장에서는 또 하나의 최첨단CNC공작기계인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련하기계》 개발자들이 새로 내놓은 9축선삭가공중심반은 2개의 선삭가공주축과 1개의 다기능후라이스가공주축을 포함하여 모두 9개의 조종축을 가진 고성능형CNC공작기계이다.
길이 4.0미터나 되는 이 설비는 그 어떤 형태의 제품도 높은 정밀도로 가공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자동차공업, 선박공업, 우주 및 항공공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첨단제품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어이기계이다.
《련하기계》 개발자들은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100% 자체의 기술과 지혜로 설계제작함으로써 CNC공작기계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높이에 올라선 조선 지식인들의 과학기술수준과 개발능력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지하시였다.
《CNC기술의 명맥을 자기 손에 확고히 틀어쥐으로써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오늘 세계의 발전된 나라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9축선삭가공중심반과 같은 높은 수준의 고성능형CNC공작기계를 만들고있는 나라는 몇개 나라뿐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90년대에 2-4축의 표준형CNC공작기계를 개발하여 CNC화의 새로운 단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 2000년대에 5축가공중심반과 고성능형 8축, 9축CNC공작기계를 만들어 CNC기술의 패권을 확고히 틀어쥐 《련하기계》 집단은 당장전 65돐을 앞둔 경사로운 시각에 CNC공작기계기술에서 가장 앞선 단계에 이른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의 개발은 위성제작 및 방사국, 핵보유국인 우리 나라를 CNC강국으로 만들어 나갈 현대적 포부를 안으시고 《련하기계》 개발자들을 최첨단돌파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결을 결을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세계적 수준을 돌파하고 비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CNC기술이 강성

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CNC기술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는 최신행의 최첨단설비인 어이기계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낸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최첨단으로 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목표를 한번씩 높일 때마다 자기의 두뇌로 새 기술을 개척하고 완강한 의지로 끝까지 성공의 길을 걸을수 있도록 지혜와 용감성을 안겨주시고 새 기계개발에 세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면서 길을 걸을 때 따뜻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이기계의 개발은 품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개발자들의 투쟁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나날에 우리 식의 CNC체계를 개발하여 각종 CNC공작기계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함으로써 CNC공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애국적위훈을 세운 《련하기계》 개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새로운 포부와 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

으로 보다 높은 과학기술높이에 올라섬으로써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첨단설비들을 낳을수 있는 어이기계인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는데 또다시 성공하였다.
세계적으로 표준형의 CNC공작기계 개발주기도 여러해가 걸리는것으로 볼 때 고성능형의 최첨단기계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만들어낸것은 우리 당의 구상이라면 미지의 그 어떤 세계도 정복할 높은 열정과 완강한 의지를 지닌 조선지식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의 파시로 되며 이것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우리 당의 구호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련하기계》 개발자들이 발표한 9축선삭가공중심반에는 특수한 기술적인 비결인 노하우가 무려 여러개나 포함되어 있다.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최첨단어이기계를 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들에서 단 한번의 실패도 없이 단번성공을 이룩한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의 사회주의적기술발전의 참다운 우월성으로 되며 이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지적잠재력을 보여주는 금지높고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오늘 《련하기계》 집단은 높은 실력을

검미하고있을뿐아니라 이미 현대적인 CNC공작기계개발과 생산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또한 최첨단설비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기술정보들을 보유하고있으며 현대적인 CNC설비생산기지를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CNC기술을 개척하고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온 나라 CNC화의 설계대로 수많은 CNC설비들을 만들어 나라의 곳곳에 퍼지며 남모르는 위훈을 세우는 《련하기계》 집단 안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들을 나라의 영웅으로, 박사라 키워주시고 집단에 영예의 김일성훈장까지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자만과 담보물 모르는 상송의 열정을 걸어왔다.
이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의 최첨단을 돌파할 도전자의 배심과 의지를 가지고 당의 품속에서 다지고 축적해온 높은 정신력과 기술개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선군시대의 빛나는 성공작을 내놓았으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와 조선로동당장전 65돐을 앞두고 로동당시대의 자랑인 또 하나의 최첨단기계에 《련하기계》라는 이름을 금지높이 새기였다.

은 나라의 대경사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경사로운 새 소식인 9축선삭가공중심반의 개발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선군혁명승리의 길을 추억깊이 돌이켜보고 또다시 걸어갈 백전백승의 한 걸음 금지높이 내다보고있는 찬란군민에게 새로운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최첨단제품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은 우리 나라 CNC공업의 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서 전략적인 의의를 가진다.
CNC기술개발에서 편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있는 《련하기계》 개발집단은 더 높은 최첨단의 고지를 돌파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은 나라에 또 하나의 대경사를 불러온 최첨단돌파의 새 소식은 위대한 당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금지높은 사변으로 력사에 기록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송미란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승리적 완공!

조국과 인민이 두고두고 자랑할 이 영웅적위훈에는 힘겨웠던 고난의 그날부터 승리의 오늘까지 스스로 간석지건설장에 달려나와 애국의 열정을 깡그리 바친 지원자들의 값높은 삶도 비껴갔다. 그들은 어떤 명에도 보수도 바라지 않고 누가 보진말건 간석지방조제에 진한 땀과 뜨거운 지성을 소문없이 묻은 이름없는 영웅들이었고 가정도, 개인의 행복도 뒤에 두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심장의 피를 끓인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애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대계도간석지방조제복구전투가 시작되던 때는 온 나라가 허리머를 조이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 건설자들과 함께 간석지건설에 펼쳐나선 지원자들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뜨거운것이 끓고있었는가.

100년째 처음으로 들이닥친 해일로 하여 피해를 입은 간석지방조제를 복구하는 전투가 벌어진다라는 소식은 삼시에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게 하였다.

다음날, 방조제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이 하여 미려질 정도였다. 질풍을 지고 맞들이며 마대를 들고 걸어가는 끝없는 사람들의 행렬...

대계도간석지에 새겨진 로동당시대의 영웅사시

간석지건설에 바친 지원자들의 애국의 열정

간석지주변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모두 떨쳐나섰던것이다. 그속에는 소꿉친구를 이고 나선 한 할머니도 있었다. 그로인한 남편은 우리 나라에서 간석지건설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때부터 간석지건설을 맡은 기업소의 책임일꾼으로 일해온 공로있는 일꾼이었다. 겨울 때만 남편의 뒤를 이어 사람들의 행렬에 들어선 그 할머니를 알아보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장기업소의 한 일꾼이 황급히 달려왔다.

《할머니, 걱정마시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그러자 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 방조제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간석지건설에 헌생을 바친 우리 평민의 피땀도 스며있습니다. 어떻게 쌓은 방조제라구 눈을 편히 뜨고있으면서 집안에서 가만히 앉았있소.》

일꾼은 눈곱이 젖어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어느 작업장이나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

이곳을 지나가던 어느 한 부대의 인민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소장평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간석지방조제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는가 하면서 군복을 땀으로 적시며 들은만찬

투에 참가하였다.

여러가지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작업장으로 달려나와 건설자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준 가두녀성들... 그리고 고서도 이름 석자 남기지 않고 사서진 지원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당장 이곳으로 달려올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담은 지원물자를 보냈다. 그때 공사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다.

방조제로 향하는 입구에는 사람들이 놓여있는데 그속에는 깨끗한 작업장갑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하루종일 땀을 다루어야 하는 방조제복구전투에서 건설자들의 작업장갑은 하루가 멀다하게 쓰쓰게 되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지함속의 새 작업장갑을 받아오는 건설자들의 열골에는 신갈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처음엔 건설자들도 그 소행의 주인공이 어느 종업원까지 줄줄로만 알고있었다.

며칠후 현장속도반에 이런 편지가 붙여졌을 때야 그들은 고마운 녀성의 이름과 소속을 알게 되었다.

《저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건설장에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간석지방조제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는가 하면서 군복을 땀으로 적시며 들은만찬

를 붙이 번쩍 일게 다그쳤다.

한문이 그대로 초석이 되어 방조제를 떠날려는 이런 각오와 열정에 넘쳐있는 청년들이기에 자동차를 운전할 기쁨이 부추어져 돌은반에서 예를 먹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 밤으로 방조제로 달려갔다.

나라의 귀중한 땅이 물에 잠겼는데 어떻게 기쁨이 보장되기만을 기다리겠는가. 등집으로 돌을 운반하여서라도 방조제를 지켜내자!

돌격대장의 호소에 화답하여 간석지의 밤하늘을 밝히려 타고 수천개의 해불들, 정녕 그것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심장으로 지켜온 애국의 불이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앞장에서 서서 돌운반전투를 벌였다. 하루도 하루 등집으로 돌을 운반하느라 그들의 땀집은 작업복은 마를새없었다. 저녁에는 돌을 옮겼던 잠들이 너무 쓰러 바로 눕지 못하고 엎드려있는 돌격대원들도 있었다. 그들의 별장게 된 등을 어루스는 건설자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들을 보고 청년돌격대원들은 웃으며 말하였다.

《이렇게 땀뻘 땀을 흘리고보니 내 조국의 더할말이 없구나 귀중한가를 더 할 것 같습다. 우리 모두는 여기 건설지에서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 조국을 받드는 길에 청춘을 바친다는것이, 조국을 받드는 뿌리로 산다는것이

원공된 대계도간석지에 모실 영광의 그날을 앞당길 뜨거운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발이 마를새없이 자재물자사업을 성심성의껏 도와준 국가검열성 일꾼인 리광호, 홍준철, 구룡동무들, 건설자들의 생활을 친부모, 친형육의 심정으로 위해주고 힘껏 떠밀어준 직공중앙위원회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 간석지건설은 조국의 만년대계의 제부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애국사업인데 여기에 땀을 바치지 못하는것이 무슨일이야 왜 바치지 못했는가고 하면서 많은 지원물자를 성심성의껏 보내준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연추군인민위원회 일꾼들...

우리는 여기에 간석지건설자들속에서 우리 어머니들로 불리운 평안북도의 녀명원들을 비롯하여 간석지건설에 물질방면의 지원을 아끼없이 바친 그 많은 지원자들에 대한 가치가 더 이상을 다는 건하지 못한다.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으다. 그 이야기를 성벽마당 떨어진 방조제앞에서 끝없이 출렁이는 서해의 파도가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는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업적을 빛내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며 바쳐가는것을 더없는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인민.

이런 애국자의 대우가 있기에 머지않아 이 땅에서는 강성대국시대의 만세소리가 높이 터져오를것이다.

본사기자 김 호 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한 은하수 《9월음악회》 진행



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어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독창적인 선군명도로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조국찬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절세위인을 모시어 끝없이 흥성번영하며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이 활짝 꽃피는 내 나라의 위창한 미래를 그려보았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갈 천만민국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어올림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62돐을 김일성동지의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는 대정치축제로 빛내이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야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백두대지를 들끓게 하는 경희극 《산울림》의 메아리

시대의 천만군민을 격동시키고있는 김일성상관작품경희극 《산울림》 공연이 해산에서 9월초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지금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을 따라 대고초의 한길로 당기뻐뻐,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습니다.》

래일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의의있는 시대적문제를 밝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선군시대의 인간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교본인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량강도에속극장으로 찾아오고있다.

출연자들은 천리마시대 인민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승화시켜서, 불굴의 투쟁모습을 명랑한 웃음과 제지없는 해학속에 잘 펼쳐보임으로써 관람자들이 하여금 천리마시대 사람들과 나라는 랑심의 울음을 자신들안에

제 1 2 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영화인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제 1 2 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축전에서는 수십개 나라에서

국제품력에너르기술탄습 진행

평양국제제기술경제정보센터의 주최로 국제품력에너르기술탄습이 6일부터 10일까지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탄습에는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부문 일꾼들과 품력에너르기술탄습자들이 참가하였다. 세계품력에너르기술탄습 서기장 스페인 그랑과 도이힐란드,



위대한 우리 당의 항도따라 선군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나아갈 신념의 맹세 노래에 따라간다. -한덕수평양공업대학에서- 리 진 명 적음

제 2 차 조중대학학장연단에 참가할 중국 대표 단 들 도 착

제 2 차 조중대학학장연단에 참가할 중국교육부대표단과 길림대학, 중산대학, 할빈공업대학, 료녕대학, 복단대학, 천진대학, 남개대학, 대련리공대학, 동북대학,

공화국창건 62돐 경축연회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용을 만방에 떨치며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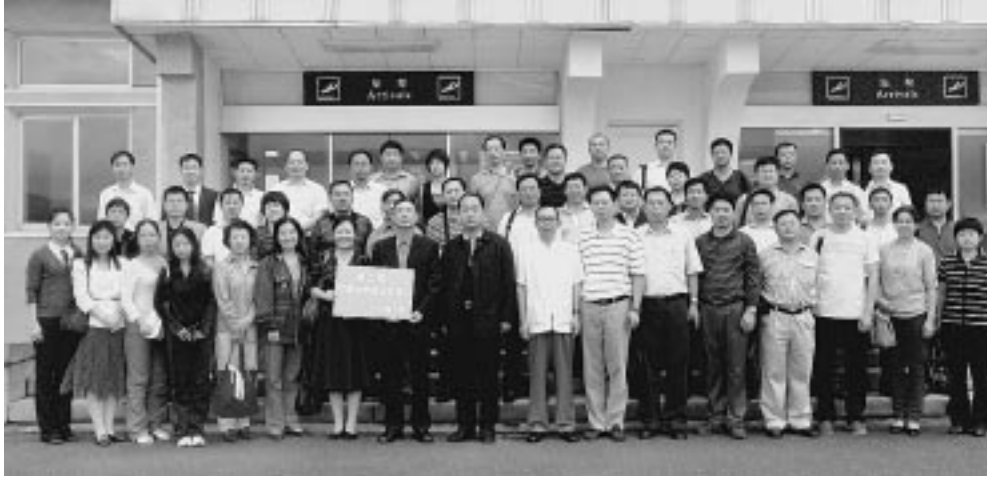
그는 뜻깊은 기념일이 되는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명도들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불같은 결의에 충만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공화국창건 62돐 경축연회

강화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조로공동동진들의 정신과 국가간조약에 맞게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로씨야무정부 부상은 오래고 또 심도있는 로조친선의 전통은 두 나라 수뇌분들사이에서 합의된 공동문건들과 2000년 국가간조약에 반영되어있고 하면서 로씨야는 자기의 가까운 이웃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합하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호상유익한 면제를 강화발전시켜나



반 제 민 전 중 앙 위 원 회 선 전 국

《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 발표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구국전선》인터넷사이트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 이시계가 남조선에 걸친 대외투쟁 65주년 되는것과 관련하여 8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국민들여여!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가 이남방향을 강점한 때로부터 이언 65년이 되었다.
미국의 이남강점은 우리 민족을들로 갈라놓고 40여년간 일제식민지통치를 겪은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치욕의 노예살이를 강요한 내장도적이고 비법적이며 파멸적인 침략행위이다.

장강 65년에 걸친 미군의 강점사는 미제야말로 《해방자》,《원조자》,《보호자》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침략자, 약탈자이며 피에 주된 살인마라는것을 고발하고있다.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미제는 야수적인 학살과 약탈을 일삼으며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통가하는 최악한 군정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유엔의 간관민에 《단선단정》을 조약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총칭으로 무화시켰다.

전 《한》반도를 타고앉은 야망이 6. 25북침전쟁을 도발하여 삼천리강토를 초토화하고 수백만의 우리 겨레를 무참히 학살한 흉악한 전쟁도 바로 미제이다.

정찰, 포격을 아로 쓰는 기관 침략과 학살, 파격을 도막으로 삼아온 미제침략군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이 땅에 어느 한시도 무고한 우리 민족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불의와 독재정치에 대한 지긋은 분노의 폭발이었던 4. 19민중봉기를 군사독재타도 및공공재정 개혁의 도사 파우를 피바다에 잠근 주범도, 《윤금이살해사건》을 비롯한 집중도 낮을 불합리한 야수적행위를 감행한 살인마도 다름아닌 양키침략자들이다.

미국의 이남강점사는 피에 미제침략군의 전대미문의 죄악의 력사이다.

미제에 의해 장강 65년동안이나 갖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있는 것은 우리 이남민족의 참수수 없는 수억천 비극이다.

미제의 이남강점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고있는 분별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미제침략군은 삼천리강토를 두동강내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강요한 원흉이며 《한》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있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내년과 내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통일투쟁을 가로막고 분열을 지속시켜온 장본인도 양키이며 온 겨레에게 환호와 기쁨을 안겨준 6. 15자주통일시대의 호메에 진보수 《정전》조약과 북침전쟁행동으로 도천해나선 방해자도 미제이다.
지금 미국은 65년간이나 우리 겨레에게 분별의 쓰라린 고통을 강

요한것도 부족하여 핵전쟁의 참화를 들쳐오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특대형도막극인 《천안》호침몰 사건을 조작하고 반공화국살상에 피눈이 된 미제는 이남의 반동일호 건설자들을 사육하여 매일같이 북침 핵전쟁행위를 광란적으로 벌면서 제2의 6. 25전쟁을 도발하려고 발광하고있다.

《한미동맹》강화의 간판에 날로 무모해지는 삼진과 주부의 군사적결탁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를 돌이킬수 없는 전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는 극히 위험적인 방향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제의 이남강점후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항시적으로 지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강경과 침착한 사세가 조성된것은 일찌기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한》반도를 벗어나 인류에게 재앙을 들쳐올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며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울것은 우리 강토이고 우리 민족이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미제의 북침전쟁행동도 추종해나선 의적배당의 추악한 친미시대미국행위도 하여 더욱더 위기일발로 치닫고있다.

미국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친미시대배당은 《한미동맹》강화의 미명하에 전시작전통

제전환연기를 구걸하는 등 이 땅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영원히 섬겨 버치려고 획책하고있다.

지어 역적배당은 일본의 후면마미군까지 이 땅에 끌어들이려는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미제의 세계체제전략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다.

이것은 《한》반도를 미제의 침략정책의 제물로 완전히 섬겨버치며 우리 민족을 멸망들의 희생물로 내맡기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책이다.

식민지강점군인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 틀고앉아있는 한 우리 민족은 논예의 골짜기에서 벗어날수 없고 논예가 일일침투로 바라는 조국통일을 고사하고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전체 국민들여여!
피비린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미제의 강점사는 우리 민족에게 세기와 세기를 이어 참수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비극적력사를 총괄한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있다.

치욕과 굴욕의 세월속에 반미로 각성되고 외세없는 새세상을 피터 갈갈해온 전국민은 하나로 굳게 뭉쳐 우리의 운명을 우리 힘으로 개척해나야 한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각계층 민족은 미제침략자들

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에국성정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군사적강점을 청산하고 빼앗긴 이 땅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의 불꽃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자!
우리 민족문제를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분쇄해버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고 극악한 살인마인 미제침략군을 제 소굴로 추방하자!
경향각지에서 미군지치체제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미제침략군이 이 땅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일수 없게 하자!
《한미호상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침략적이며 불공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전면 폐기, 무효화하자!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서 감행한 온갖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폭로단죄 하자!
반민정화는 우리 민족의 한걸음도 거두지 못하라는 투쟁에 굳게 뭉쳐 나가자!
계급과 계층, 정견과 신앙,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가자!
온 겨레에게 핵확화를 들쳐오고 삼천리강토를 초토화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세 전쟁도발책동을 결사저지 파란시키자!

《한》미호전행들이 벌려놓으려는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항쟁을 세차게 벌려라!
리명박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정책의 하수인이며 북침전쟁책동의 돌격대이다.
미국에 대한 영원한 노예적굴종론이고 동족살살론이며 전쟁론인 《한미동맹강화론》을 산산이 박살내라!
이 땅을 영원히 미제의 침략까지로 내맡기려는 역적배당의 추악한 사대매국범죄를 준철히 단죄분쇄 하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있는 극악한 친미역적배당을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려라!
력사적인 6. 15공통선언과 10. 4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변함없는 가치이고 민족공존정신의 보물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민족은 6. 15를 고수, 리명박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가서!
친미보수배당의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비롯한 동족대결정책을 결사반대하자!
동족을 반대하는 역적배당의 반공화국파도동과 전쟁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라!
6. 15일풍으로 반자주, 반평화, 반통일행동을 밀어내고 자주와 민병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우리 민족끼리끼리 친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가일층 강화해나가자!
투철한 반미의식의 확립과 반미력량의 단결은 반미에국성정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망국적인 승미, 공미사상을 뿌리 뽑고 확고한 주제의식, 민족자주주의적으로 정선무장하자!
미국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버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역세게 틀어쥐고나가자!
미국의 지배와 강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각당, 각파, 각계층 민족은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진보세력, 통일애국세력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연대련합을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전체 국민들여여!
미제의 저주로운 강점사에 중지부를 찍을 때는 왔다.
이 땅을 비제국화시켜침몰시키고 놓지 않으려는 미제의 발악적책들은 약탈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려는 각계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파격할 진출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는 위대한 선군의 가치가 있고 자주가 살려주는 우리 민족의 강철한 의지가 활화산처럼 융숭추어지고있기에 반미에국성정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나 필승의 신심과 약관을 안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들을 대항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에 분연히 떨쳐 나섬으로써 외세없는 자주와 새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자.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이 5일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에는 조흥호 6. 15공통선언선책 해의추적회 회장 박기창, 구경조위원장 박기창, 구경조위원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재우즈베끼스탄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담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조선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 력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회주의 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사 한상별목사의 석방을 요구

남조선의 6. 15선언선언을 위한 한상별목사 방북 기록교대책임위원회가 7일 서울에서 통일사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당국이 아무런 그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의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목사를 우리 조국속으로 돌려보내달라 요구하였다.

남조선에서 6. 15선언선언을 위한 한상별목사 방북 기록교대책임위원회가 7일 서울에서 통일사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당국이 아무런 그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의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목사를 우리 조국속으로 돌려보내달라 요구하였다.

파쇼폭압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파쇼행위... (Text is partially obscured by an image in the original document, but the content is the same as the caption below)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재협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에 우려 표시

이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도드 그레그가 8월 31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대조선강경정책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헌법에 조사단

남로 들어나는 미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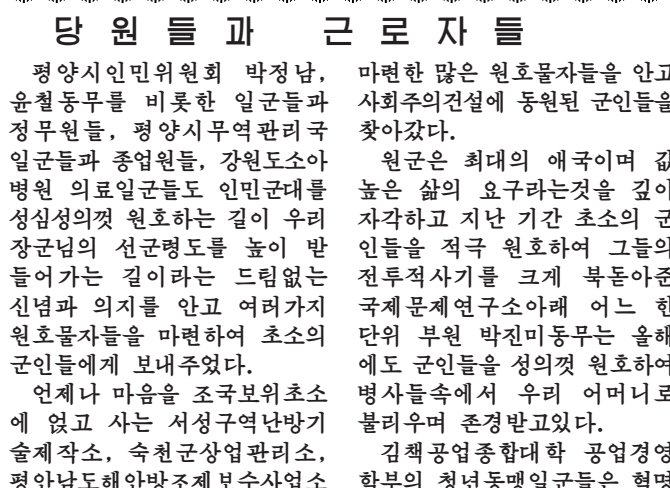
남조선강경 미제침략군사령관이라는 자는 사병들의 《야간통행금지시간을 제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느니,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니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어떻게 하나 주민들의 분노를 무마시켜보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높아지는 반미 감정을 죽일수 없다는것을 실증해 주었다.

남조선에서 남로 들어나는 미군범죄의 대상은 남조선인민들이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가 급격히 확대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그만큼 늘어나고있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에서 남로 들어나는 미군범죄의 대상은 남조선인민들이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가 급격히 확대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그만큼 늘어나고있는것을 말해준다.

다우 동맹을 깨고

다우 동맹을 깨고... (Text is partially obscured by an image in the original document, but the content is the same as the caption below)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재협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북두봉에 휘몰아치는 투쟁과 창조적 열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흥청년영웅광산의 로동계급은 우리 식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려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마그네사크림과 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였습니...》

산에 들에 오르백과 푸르익는 계절에 우리는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기행의 길에 올랐다.

강성대국건설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흥청년영웅광산의 로동계급은 우리 식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려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마그네사크림과 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였습니...》

산에 들에 오르백과 푸르익는 계절에 우리는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기행의 길에 올랐다.

강성대국건설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으로 꾸려져있다.

동행한 일꾼은 지금 광산에서는 어린일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풍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있다고 하였다.

하기에 지난해 광산을 찾으신 경에하는 장관님께서는 불과 몇해동안에 광산을 사회주의 무릇도현으로, 락원지대로 전 변시키고 주체사상을 실현으로 빛나게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면서 여기가 바로 락원지대로, 이곳 당원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을뿐만

이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우리는 지난해 경에하는 장관님께서 다녀간대 대흥마그네사크림과분공장으로 발전을 올렸다.

광산정문에 들어서니 기둥에 술선동태의 힘찬 휘주악대가 울려퍼졌다.

우리와 만난 분공장초급당 비서 김학태동무는 분공장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인 올해에 대교조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려 매달 말려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고 긍지높이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먼저 경에하는 장관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컴퓨터중심실 에 들었다.

마그네사크림과분공장은 컴퓨터로 조종할수 있는 생산체제를 완성한 자랑 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

평양시인민위원회 박경남, 윤철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각급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선군혁명기의 기동, 강성대국건설의 걸궤적인 인민군인민들 중심성에 신념과 의지를 안고 드러나고 있다.

정변 잠간 만나도 정이 들어 헤어지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몇해전 위대한 장관님께서 오르신때 할 한 1700m의 북두봉으로 올랐다.

부강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를 안시시고 몸소 산세험한 북두봉으로 오르셨던 경에하는 장관님의 그날의 재로없는 영성과 더불어 되새겨보라니 마음 더더욱 후회없었다.

구름 한점없이 청정하다가 도 때없이 비가 쏟아져내리 고 바람이 사납게 불어치는 북두봉에서는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며 6월 5일평방산 로 동계급이 창조기와 착암기의 등용을 높이 올리며 광물 생산전투를 힘차게 벌이고 있다.

그 힘찬 등용은 그대로 대교조시대의 모습이 되고 전군가가 되어 사람들의 심장을 광광 울려주고있다. 바람이 불다 가 갑자기 멎자 풍계봉을 하늘로 날아오르는 횡구물사이로 눈부신 햇빛이 부채살같은 빛을 뿌리고있다.

그 빛나는 경에하는 장관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산악인이 한걸음 더 높이 오르리라 다짐한 장관님의 투쟁은 뜨겁게 촉촉해주시는 주춧돌이다.

본사기자 송창윤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

연합토론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8월 26일 메히코에서 《선군으로 위용 떨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연합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주제사상연구 메히코전국조정위원회, 메히코주제사상연구소,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와 산하연구소들의 인사들과 군중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제사상연구 메히코전국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라몬 헤네스 로페스가 연설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

조선은 선군으로 불멸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일성조선으로 길이 빛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전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빛날것이다.

이러 토론회들이 잇따랐다.

메히코주제사상연구소 위원장 후안 캄보스 베가를 비롯한 토론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을 내놓으시고 조선에 자주, 자립, 자위와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데 대하여 열렬히 격찬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수호되고 공화국의 위용이 만방에 높이 떨쳐지고있는데 대하여서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멸성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제드 칸 메논과 민족사회주의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파싸놀 하크 이누가 8월 31일 공동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 만세!

방글라데시인민과 조선인민과의 친선단결 만세!

그들은 주제사상, 선군사상 연구보급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데 이바지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발표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 만세!

방글라데시인민과 조선인민과의 친선단결 만세!

그들은 주제사상, 선군사상 연구보급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데 이바지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발표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 만세!

방글라데시인민과 조선인민과의 친선단결 만세!

블레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페루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에르네스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2012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념의 리념에 떠받들려 력사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진리를 사방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거대한 의의를 떨

발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평화의 보루라고 하는것은 조선인민이 남달린 평화를 염원하고있으며 공화국정부가 평화유호정책을 확고히 지지하고있음뿐아니라 이를 위한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였기때문이다.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범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역과 세계평화의 믿음직한 보루로 되게 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제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선의 실정과 인민의 요구에 맞게 세워진 조선식국가이며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나왔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 만세!

방글라데시인민과 조선인민과의 친선단결 만세!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 만세!

방글라데시인민과 조선인민과의 친선단결 만세!

조선청년들은 나라와 인민의 자랑

국제사회계가 찬양

조선청년들은 나라와 인민의 자랑을 지키고 희망과 미래를 꽃피워주는 정치이다.

하기에 조선청년들은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조선청년들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뉴 네이슨》은 사회주의조선에서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되고있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을 건전한 사상과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로 키우는 정치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청년들을 용감부양한 실천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실험을 다 마쳐신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이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희망과 미래를 꽃피워주는 정치이다.

하기에 조선청년들은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조선청년들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뉴 네이슨》은 사회주의조선에서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되고있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을 건전한 사상과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로 키우는 정치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청년들을 용감부양한 실천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실험을 다 마쳐신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이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희망과 미래를 꽃피워주는 정치이다.

조선청년들은 나라와 인민의 자랑을 지키고 희망과 미래를 꽃피워주는 정치이다.

하기에 조선청년들은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조선청년들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뉴 네이슨》은 사회주의조선에서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되고있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을 건전한 사상과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로 키우는 정치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청년들을 용감부양한 실천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실험을 다 마쳐신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이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희망과 미래를 꽃피워주는 정치이다.

조선청년들은 나라와 인민의 자랑을 지키고 희망과 미래를 꽃피워주는 정치이다.

하기에 조선청년들은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조선청년들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뉴 네이슨》은 사회주의조선에서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되고있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을 건전한 사상과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로 키우는 정치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청년들을 용감부양한 실천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실험을 다 마쳐신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이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희망과 미래를 꽃피워주는 정치이다.

청년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

나이지리아대통령 곤라크 에벨레 조나란이 5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청년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체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재력을 높이고 법규범과 규율을 준수하는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훈련해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체육활동은 지역의 통합과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청년들의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범죄반대투쟁을 강화할 입장 천명

메히코대통령 페르레 켈레네 이노호씨가 2일 전체 인민들에게 한 TV방송연설에서 조직적인 범죄행위와 투쟁을 강화할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지난 3년 남짓한 기간에 경찰과 군대 및 120명의 범죄그루빠두목들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제1부대통령 모함마드 베자 라히미가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집요한 제재책동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지난 수십년간 이란의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제재를 가해왔는데 결국에도 그것은 나라의 더 큰 발전을 이룩하려는 이란인민의 결심을 더욱 굳게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 단죄

이러한 제1부대통령 모함마드 베자 라히미가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집요한 제재책동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지난 수십년간 이란의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제재를 가해왔는데 결국에도 그것은 나라의 더 큰 발전을 이룩하려는 이란인민의 결심을 더욱 굳게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간다》

중국 《인민일보》의 글

중국 《인민일보》 5일부가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간다》라는 제목으로 조중 두 나라 청소년들사이의 교류와 친선을 통해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의 김성주초등학교와 중국 길림성의 무송현 실험초등학교가 친선학교 관계에 맺힌 1돐을 맞으며 조중 두 나라 청소년들사이의 교류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매진 김성주초등학교와 무송현 실험초등학교의 서예 및 그림전

사회 개막식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두 초학교 교원, 학생들이 창작하여 출판한 작품들이 호금도총서기동지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따뜻한 관심속에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가려는 그들의 결심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열망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계속하여 김성주초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서예 및 그림전시회개막식에서 류홍경 조선주제 중대사는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8월말 중국을 방문하시어 길림육문중

학교를 참관하시면서 학생들속에서 어떤 준비도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중 두 나라 청소년들사이의 교류를 촉진시킬것이라고 하였다.

신문은 김성주초학교 학생들이 이번 서예 및 그림전시회를 통하여 중국의 소학학문과 친선의 정을 두루히 하였다면서 중조친선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발 본사특교기자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 지지

요르단국왕 अबدر라호 2세가 5일 기자회견에서 독립국가창설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령토에 독립국가를 건설할것은 선진적인 전략적목표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나라는 자주적이고 독립된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기본으로 하는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사일 시험발사

이 나라 국방부력평상상은 이란전문가들이 자체로 설계 제작한 《파페호-110》이 목표물을 타격할수있는 정밀도가 높은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일자리 촉감

미로동성은 3일 조사자료로 인용하여 8월에 전국적으로 5만 4000개의 일자리가 촉감되었다고 밝혔다.

제업부문에서만도 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경영형편 악화

그리스에서 경제위기의 후파로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이 더욱 악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현재 중소기업체 5개중 1개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직전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역사외국책동 비난

로씨야방방의 의장 세르게이 미로노프가 최근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일본의 역사외국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일본이 이른바 《북방령토의 날》을 공식적으로 정하고있으며 지도와 령행인사에

향 일회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6일 치재기회를 위한 농민들의 향일회 개최되었다.

집회에는 세칠리아섬과 움브리아, 포스카나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농민들 약 1000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전염병 피해

뉴질랜드에서 A(H1N1)형질염증과 피해를 입고있다.

3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신형독감환자수가 631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런 력사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외무사라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력사의외국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조건에 불만과 우려

미국인들속에서 막대한 로동조건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전도 못 찾을 케번

《해군속》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자는것이 일본의상업의 기치였지만 기치위지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교당국자의 기자회견내용은 그가 의도하던것과는 완전히 맞지않았다.

일본이 해군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해우산》밑에 있다는것은 해군속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을 보호해준다는것으로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창조할것을 포기한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